



TTA 기획조사실 표준기획전략부 부장

최근의 정보통신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기술 발전추세가 빠르고 그 응용분야가 광범위하기 때 문에 표준화 활동이 ITU와 ISO 같은 공식적인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인터넷, 정보가전, 전자상

거래, 무선, 방송, 정보보호 등 각 기 술분야별로 구성된 국제적 포럼과 컨소 시엄 등 민간 단체 중심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 국제표준화 포

럼 등은 시장의 요구사항과 첨단기술을 바 탕으로 해당 표준을 신속히 개발하여 관련 분야 기술을 선도함은 물론이고, 이를 통 해 국제 시장의 선점을 꾀하고 있다. 그러

나 우리나라는 기술수준이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는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실정이고, 또한 표

준화가 노력에 비해 그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 나지 않기 때문에 민간차원의 표준화활동이 저조 할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화에 대한 대응도 미흡 한 실정이다.

> 이러한 국제적 표준화의 흐름에 부응하 여 우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정 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중심이 되 어 구성, 운영하는 표준화 포럼 활동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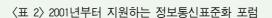
> > 원하고 있으며 새로 운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적기 에 효과적으로 표준 을 제정하고 국제표 준화 활동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며 산업 체 및 관련 기관간에

첨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민간 표준화 포럼 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표 1〉 2000년부터 지원하는 정보통신표준화 포럼

분야	포럼명
인터넷	1. IPv6 포럼 코리아
	2. 인터넷텔레포니(VoIP)포럼
전자상거래 및 전자 보안	3. 한국전자지불포럼
	4. 인터넷보안기술포럼
	5. 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
멀티미디어	6. 차세대디지털방송표준포럼
	7. MPEG Korea 포럼
정보가전	8. 인터넷정보가전포럼
통신망 및 전송기술	9. 차세대개방형네트워크포럼
소프트웨어	10. S/W 컴포넌트표준화포럼



분야	포럼명
인터넷	1. URI 표준화 포럼
	2. 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
전자상거래 및 전자 보안	3. PKI 포럼
정보화기반	4. 물류정보화포럼
	5. ITS 정보통신포럼
통신망 및 전송기술	6. 광인터넷포럼(KOIF)
	7. 한국 xDSL 포럼
	8. 정보통신망통합관리표준화포럼
	9. 초고속무선접속표준화포럼
	10. 블루투스 표준화포럼
디지털 컨텐츠	11. DRM Working Group
	12. e-Book 표준화포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정보통신 분야 10 개 전략 표준화 포럼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 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2개의 포럼을 추가로 선 정하여 22개의 포럼을 지원하고 있다(표 1, 2 참 조).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IT Forum Korea 2001』 행 사는 지난 해 창립되어 국내 표준화 활동에 괄목 할 만한 성장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10개 표준 화 포럼이 한 자리에 모여, 주요 기술 분야에 대 한 그 동안의 표준화활동 성과와 금년도의 활동 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관련 최신 기술동향을 발 표하는 자리로서 산학연 각계 전문가간의 기술 교류 및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행사였다. 각 기술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포럼 들이 공동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서로 다른 기술 영역간의 조화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이 를 통해 국내 정보통신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 였다고 확신한다.

이번 행사에는 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보통신 산업계, 학계의 전문가 1,300여 명이 참석하였고 각 포럼의 소개. 튜토리얼 및 기술발 표에 참여한 발표자도 150여 명에 달하는 성대 한 행사였다. 지원 포럼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

기술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는 정보통신인 교류의 장으로써, 이 행사는 올해를 시점으로 매년 개최 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 발표된 모든 자료들은 우리 협 회의 Home-Page를 통하여 공개되고 있다. 발

표자료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http://www. tta.or.kr에 접속하신 후 표준화정보〉표준화행사 >IT Forum Korea 2001에서 발표자료를 획득 할수있다. ****



전자지불 표준화 작업 착수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지불포럼(의장 정인식 한일정보통신 대표이사)은 전자상거래(EC) 활성화를 위해 전자지불 분야 활동계획 및 로드맵을 마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5월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지불포럼은 5월중 5개 분 과위원회별 활동계획에 대해 공청회를 갖고 최종 확정한 뒤, 표준화작업에 착수한다. 전자지불포럼은 5월중 기존 조 직체계를 개편, 기술위원회 산하에 B2B지불·카드형전자화폐·교통카드·지능형교통시스템(ITS)/자동요금징수 (ETC)·네트워크화폐 등 5개 분과위를 추가 설치했다. 이번에 전자지불포럼이 마련한 표준화 로드맵은 B2B지불·전 자화폐·네트워크 전자화폐 등이며 교통카드분과(위원장 정교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는 5월 8일 '교통카드의 전국 호환을 위한 교통카드 판독기 표준화 워크숍'을 개최해 표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밖에 B2B 지불분과 위는 금융결제원 주도하에 B2B 지불결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전자외상매출채권'의 표준화작업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하는 등 분과위별로 세부 활동지침을 마련했다.